

## 제롬글렌 "5년 안에 인간과 기술 하나될 것"

유엔미래포럼 회장, 전경련 '2010 제주 하계포럼' 참석

2010-07-29 11:49 CBS산업부 심나리기자

"인간과 기술은 하나가 된다"

제롬 글렌(Jerome C. Glenn) 유엔미래포럼 회장은 29일 제주에서 열린 전경련 '2010년 제주 하계포럼'에 참석해 앞으로 5년 안에 인간과 기술이 하나가 되는 미래 사회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글렌 회장은 "사이보그로 변모하는 인간과 환경 자체가 지성이 되는 두 가지 트렌드가 결합돼 '의식기술(Conscious-technology)'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정보사회에 이어 의식기술이 미래 사회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의식기술 사회에서는 '연결(Linkage) 자체가 하나의 생산품이 될 것이며 개개인(Individual)이 하나의 권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술과 결합된 인간 자체(Being)가 당당함을 가지는 것이 '부(富)'가 되고 전쟁이란 개념은 정체성(Identity) 싸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식기술 사회의 시간, 공간 개념과 관련해 그는 "물리적인 몸이 기술이라는 것을 통해 언제 어디에나 있을 수 있게 된다"며 "기술을 통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구분해 나가기가 힘들어지고 시간은 발명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인지하는 것과 기술 자체를 분리해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 글렌 회장은 "문명이 점점 더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인지기술을 통해 더 많은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 제롬 글렌 유엔미래포럼 회장

그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에 기반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미래 비즈니스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한편, 글렌 회장은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 운동이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는 이색적인 주장도 내놨다.

그는 "새마을 운동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됐고 수로시스템이 정비됐으며, 여기에 그린벨트 정책으로 녹색 지대를 많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새마을 운동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aslily@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